



주간통일정세 2008-11(2008.03.10~03.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1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北, 청소년들에 “일당백 군대 될 준비 갖춰라”(3/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사로청) 중앙위원회 리용철 제1비서는 15일 학생, 청소년들에게 “일당백의 인민군대가 되기 위한 정치사상적, 육체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줄 것”을 촉구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리 제1비서는 15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배움의 천리길’ 85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기념보고를 통해 “오늘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인 학생, 청소년들 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용진 교육상, 혁명사적·과학·문화예술·출판보도 분야 관계자와 청년동맹 일꾼들, 청소년 등이 참석
 - * ‘배움의 천리길’은 김일성 주석이 12세 때인 1923년 3월 중국 만주 바다오고우(八道溝)에서 포평을 거쳐 만경대까지 걸었다는 길로, 이를 기념해 1974년 5천여 명이 이 길을 행군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답사가 이어지고 있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결성 80돌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3/10, 조선중앙통신)**

- 보고회에서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장은 기념 보고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北, 반미·체제고수 사상교육 강화(3/1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게 반미와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상교육을 강화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개성시에서 당위원회 주관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반미 교육장’인 황해남도 신천군의 신천박물관과 곳곳에 세워진 계급교양관 참관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참관 후에는 “복수결의 모임을 진행해서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보도

나. 경제 관련

● **오라스콤, 휴대전화서비스 5월 개시(3/13, 연합)**

- 2008년 1월 북한의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5월에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4년 안에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일 전망,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전화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과 설비투자 등을 위해 북한에 4억달러(약 3천9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오라스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3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북한 시장에서 연간 12~15달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 오라스콤 텔레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내 최대 이동통신회사임.

● **北, 춘궁기 앞두고 전역서 쌀값 상승중(3/13, 연합뉴스; 115호, 오늘의 북한 소식)**

- 춘궁기를 앞두고 3월 초 평북 신의주시의 쌀값이 지난달 말에 비해 20% 이상 인상되는 등 “북한 전역의 쌀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오늘의 북한소식’ 제115호에서 보고함. “2월 29일에만도 신의주 쌀값은 1kg에 (북한돈) 1천300원대였는데 3월 5일 현재 1천600원대로 꺾충 뛰었고, 함흥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1천300~1천400원대에서 1천500~1천600원대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07년 곡물 생산량을 380만t 안팎으로, 농촌진흥청은 401만톤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은 120만~140만t에 달함.
- 소식지는 “식량 부족으로 평양시 일부 구역은 3월부터 식량 배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평양에서는 5월에 풀이 나기 전에 식량난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평성시장에서도 식량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보고함.

● **北인터넷사이트, ‘백두산 홍보 특집코너’ 개설(3/10, 려명홈페이지)**

- “백두산관광이 시작된다! 민족의 기상, 민족의 넋이 깃든 백두로.” 오는 5월로 예정된 현대아산의 백두산 직항로 관광을 앞두고 북한의 ‘평양6.15정보기술사’가 홈페이지 ‘려명(<http://www.ryomyong.com>)’을 개설하고 백두산의 지도와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특집 코너를 마련
- 중국 선양(瀋陽)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 홈페이지는 북한의 도서나 미술품 등을 외국에 판매하고, 동포기업 상표를 북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

다. 군사 관련

● **北, 주한 美사령관 ‘北미사일 위협’ 발언 비난(3/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남한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적대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15일 비난

- 통신은 남한의 방송보도를 인용,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이 미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라는 데서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강요했다”며 “이 자는 북의 미사일 관련 군사장비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니 뭐니 하며 남조선이 그 누구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의 미사일 방위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와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티끌만 한 변화도 없고 오직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이 골수에 차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北, 평화론은 술책, 국방력 강화해야(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강대국들의 평화론에 대해 “위장평화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제목의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그들은 위장평화 술책으로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여론전에서 우세를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책동을 평화의 보자기에 감싸 합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벌이는 조건에서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며 “국방력이 강하면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다”고 강조

● 北매체들, “3각 군사동맹 본격 가동” 비난 공세(3/13, 민주조선; 3/11, 노동신문)

-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분야 ‘3국 조정위원회’ 설치 합의를 “3각 군사동맹”의 본격 가동이라고 주장하고 비난 공세를 강화
- 민주조선은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국방연구원(IDA), 일본방위연구소(NIDS)가 ‘제4차 한·미·일 안보워크숍’에서 군사분야 협력을 위한 ‘3국 조정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며 “미국, 일본, 남조선(남한) 호전광들은 교활하게 연구기관을 앞에 내세우고 그 막 뒤에서 군사적 공모 결탁을 강화할 쑥덕공문을 벌였다”고 주장
- 노동신문도 11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통일과 변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공화국(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난했으며, 주간 통일신보도 8일 ‘3국 조정위원회’ 구성 합의가 “민족자주, 평화변영으로 나아가야 할 북과 남에



다 같이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

- **北, 대화와 전쟁연습, 양립 안돼(3/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한미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3.2~7)에 대해 “대화과 전쟁연습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일성大, 다용도 미용마스크 개발(3/16, 내나라)**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한경희 교수가 미생물 배양 기술을 적용해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를 높인 미용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북한의 웹사이트인 ‘내나라’가 보도
- **김일성大, 참나무 목초액 개발(3/15, 조선중앙TV)**
 -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이 참나무 목초액(木醋液)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TV가 소개, 이 목초액은 참나무로 숯을 만들 때 나오는 연기를 냉각, 액화한 다음 유효성분을 뽑아낸 것으로, 물에 타서 마시는 건강음료나 농작물 촉진제, 해충제, 닭 재생모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TV는 설명
- **김제원제주농업대학 식물성 농약 개발(3/15, 조선중앙통신)**
 - 김제원제주농업대학 일꾼과 교원 연구사들이 송충이 등 해충을 잡는데 효과가 있는 식물성 농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농업 부산물을 주원료로 한 이 농약은 적은 원가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제조할 수 있으며,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도
- **北체육단, 소속 축구선수 60% 세대교체(3/15, 조선신보)**
 - 북한의 각 체육단 소속 축구선수들에 대한 세대교체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60% 정도가 나이가 어린 신진선수들로 구성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신진 선수들이 대거 진출한 축구 지역별 경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첫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인 ‘축구지역별 경기’가 1부 팀들인 압록강, 리명수, 평양시, 기관차, 월미도, 경공업성 체육단과 김철주사범대학선수단 등 남녀 12개 팀이 참가해 3월 1일부터 열리고 있다고 보도
 -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김경수(53) 책임부원은, “지난해 세대교체가 진행돼 이번 경기에 참가한 모든 남녀팀들에서 60%의 선수들이 나이가 어린 신진선수들로 구성됐다”고 답변하고 “그들의 육체기술적 준비가 좋은 것으로 하여 경기는 첫날부터 불꽃이 터질 듯(흥미있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압록강체육단의 여자축구팀에 “주목이 쏠리고 있



다”고 언급

● **北탁구팀, 외국인 없이 5명 올림픽 출전(3/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한국, 일본 등의 스포츠계 일부에서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국적변경을 통해 영입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탁구 대표팀은 자기들의 힘으로 5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를 확보했다고 강조
- 신문은 ‘국적변경 제한’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J리그에서 활약하는 브라질 선수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의향을 밝히자 일본 축구계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탁구에서도 “일본은 세계선수권에 남자 선수중 주력의 2명이, 남조선도 귀화한 중국 여자선수가 처음으로 대표로 출전했다”고 지적, 그러나 북한은 “올림픽 출전자격 획득을 위한 아시아 탁구예선에서 조선(북한)의 남자 3명, 여자 2명의 선수들이 자격을 쟁취했다”며 “자기들의 힘으로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조선의 선수들에게 마음이 더욱 가게 된다”고 보도
- * 북한은 3월 9일 홍콩에서 끝난 베이징 올림픽 탁구 아시아대륙 예선에서 남자부의 김혁봉, 리철국, 정성만과 여자부의 김정, 김미영 등 5명의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

● **北, 인구센서스 준비작업 돌입(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조선(북)에서는 2008년 인구 일제조사를 위한 준비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앙통계국에서는 이미 시험조사 단계를 설정하고 2007년 10월1일부터 15일까지 각 도에서 한 군을 선정해 그 군의 읍(邑)과 한개 리(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소개
- 통신은 또 중앙통계국이 시험조사에 앞서 각급 통계기관과 해당 조사 지역의 통계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했다고 설명하고, 이 조사를 지원하는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대표단이 지난해 10월 시험조사 때 방북했었다고 보도
- 통신은 2008년 10월 1일 북한 전역에서 동시 시작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 총인구수와 나이 및 성별, 지역별 인구분포 상태, 출생 및 사망률 변화 등 인구상태 분석과 인구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
- *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UNFPA 자문관 1명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10월에는 북한 조사요원들을 돕기 위해 10명의 국제기구 관계자가 방북할 예정임. 이 인구센서스의 예상비용 약 550만 달러 가운데 400만 달러는 남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

● **北, 홍당무 크기 풋고추 육종(3/14, 조선신보)**

- 농업과학원의 중앙남새(채소)연구소에서 홍당무 크기의 대형 조생종인 ‘온실풋고추1호’를 육종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주로 온실에서 키



우는 ‘온실꽃고추1호’는 “보기 드문 대과종으로 홍당무와 비슷하거나 더 크며 대당 질량은 보통 100~120g, 최고 150g 이상 나간다”고 소개하고 매운 맛이 덜해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 **北대동강맥주, 맛의 비결은 ‘공급 속도’(3/14, 조선신보)**

-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국 취재진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북한 대동강맥주의 맛의 비결은 ‘공급속도’에 있었다고 조선신보에서 보도
- 한현철 대동강맥주 품질관리과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맛좋은 맥주의 실현은 생산공정이 50%,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봉사공정이 50%의 몫을 차지한다”며 “대동강맥주를 실은 차는 아이들을 위한 콩우유차와 같이 거리를 우선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밝힘. 여기에 대동강맥주는 맛있는 맥주 제조를 위해 공정별 온도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맥주’ 생산을 목표로 해외에서 연수받은 기술자들로 구성된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특히 “분석실은 대동강맥주와 일본, 남조선, 중국,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맥주들을 분석하여 추세를 알아내는 동시에 대동강맥주의 상시적인 상태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소개
- * 대동강맥주 공장은 영국의 맥주 생산 업체인 어쉬스맥주의 가동 중단된 영국 현지 공장을 인수한 뒤 그 설비를 해체, 평양으로 옮겨 대동강맥주회사라는 상호로 설비를 재조립해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

● **교육도서출판사에서 학생 작품집 출판(3/13, 조선중앙통신)**

-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 7을 출판했으며 작품집에는 72명 학생이 창작한 300여편의 동요, 동시, 작문, 서정시 등이 실림.

● **北, ‘봄철 위생월간’ 맞아 환경개선 총력(3/13, 조선신보; 3/1,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이 3~4월 ‘봄철 위생월간’을 맞아 주택과 공장 등에 대한 환경 미화와 개선, 녹지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음. 특히 올해는 봄과 가을철에 벌이는 ‘위생월간’ 사업이 시작된지 50돌이 되는 데다 북한 정권수립 60돌(9.9)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13일 “올해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조선(북)에서는 봄 계절에 진행하게 되는 위생월간 사업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며 환경 미화와 개선을 위한 “군중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노동신문(3.1)도 ‘봄철 위생월간사업에 적극 펼쳐 나서자’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정권수립 60돌을 맞는 만큼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겨울 난 흔적을 말끔히 가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의 '위생월간'사업은 고 김일성 주석이 1958년 5월 4일 '보건위생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하고 매년 봄(3~4월)과 가을(9~10월) 두 차례 위생문화사업을 벌이도록 함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평양, 2011년 태권도세계대회 단독 후보도시(3/13, 조선신보)**

- 평양이 2011년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단독 후보지가 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2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평양과 스위스의 바젤이 올랐으나 바젤이 연맹규약의 신청요건을 맞추지 못해 탈락함으로써 평양이 유일한 후보도시가 됐다고 보도, 최종 결정 투표는 9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연맹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

*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남한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F) 주관의 국제대회와 별개로,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주관하는 대회임.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2007년 4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시에서 제15차 대회가 열렸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제16차 대회가 개최될 예정

● **北기상연구소, 장마 6월말-7월초 시작**

- 북한 기상수문국의 중앙기상연구소가 올해 봄이 온 시기는 2월 말로 평년 수준이었지만, 2008년보다는 20일정도 늦었다고 밝힘. 조선신보는 13일 중앙기상연구소의 발표를 인용, "또 올해 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여름철에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과 같을 것이라면서 여름철 장마는 6월 말~7월 초에 시작, 6~7월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

● **北, '환경센터' 설립, 청소년에 환경 교육(3/12,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KEF, 이하 환경기금)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환경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2005년 3월 설립된 북한 환경기금이 "광범위한 인민을 대상으로 계몽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서 환경센터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北, 겨울가뭄에 농사철 앞두고 '물 확보전'(3/12, 조선중앙방송)**

- 겨울 가뭄을 겪은 북한의 농촌에서 올해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올림픽 성화 4월 28일 평양 시내 달린다(4/12, 연합뉴스)**
 -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4월 28일 평양 시내를 달리게 됨. 중국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11일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4월 27일과 28일 서울과 평양에서 거행된다고 보도, 베이징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성화 남북 중단 여부에 대해 “성화는 27일 밤 특별기 편으로 북한으로 옮긴다”고 언급
 - * 성화봉송로는 주체사상탑에서 출발해 5.1경기장-김일성종합대학-조중우의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보통문-인민문화궁전-평양체육관-김일성광장-천리마동상-개선문-김일성체육관까지임.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은 올림픽 사상 이번이 처음이며 남북한에서 잇따라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임.
 - 또 삼성, 코카콜라, 련상(聯想) 등 후원 3사(각각 6명)와 국제올림픽위원회(2명), 중국대사관(4명)이 선발한 24명 등 모두 80명이 250m씩 모두 2km를 달리게 됨.

- **설립 60주년 맞은 北 조선적십자병원(3/10, 조선중앙방송)**
 -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과 함께 북한의 3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이 창립 60돌을 맞이함.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이 10일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참석해 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전달했다고 보도

- **北남성들, 여성의 날에 화장품 선물(3/11, 조선신보)**
 - 북한에서 ‘세계 여성의 날’(3.8)을 전후해 화장품 매장에 여성용 화장품을 찾는 남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이슬람회의기구 美특사 임명 비난(3/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미국이 최근 이슬람 국가들의 최대 기구인 이슬람회의기구(OIC)에 대해 미국 특사를 처음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위선적인 외교 놀음”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은 ‘검은 속심(속셈)이 비낀 위선적인 외교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반 이슬람교적인 행동은 이슬람교 세계에서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슬람교 세계를 기만 우롱하는 위선적인 외교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원회 대표단(단장: 류검 서기) 방북 후 귀국(3/15, 평양방송)
- 김정일, 中후진타오에 재선 축전(3/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중국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선출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후 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며 “조(북)·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 협조 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후 주석)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보냄.
 - 김 위원장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축전을 보냈음.
 - 한편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후 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우방귀(吳邦國)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이 기회에 조·중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계속 공고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보냄.

다. 북·일 관계

- 北, 對日 비난 지속(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일본이 북한의 핵확산과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제 눈을 찌르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
- 北, 日 과거청산은 ‘국가 배상’ 방식돼야(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의 과거청산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국가적 배상”이 돼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경제협력’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이날 ‘황당한 궤변’ 제하의 논평을 통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최근 NHK TV에 출연해 “북한이 할 바를 하면 경제적으로 ‘협력’하겠다”, “과거청산이란 거대한 경제협력”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 “우리 인민의 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라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북·러, 하산-라진 철도개선 합의문 채택(3/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방북, “조(북)·러 두 나라 철도 기관들이 빠른 시일안에 하산-라진 사이 철도와 라진항의 개건(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착공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회담록이 조인됐다”고 보도
-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은 방북기간 김용삼 철도상, 림경만 무역상 등 북한측 고위 관료들과 만나 “대상 협조를 적극 추진하는 데서 관심사로 되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의 개건을 위한 사업은 가까운 시기에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방송은 보도,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의 라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에 17억5천만 루블(미화 약 1억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진항의 화물접수를 위한 컨테이너 처리장도 건설하게 됨.

마. 기타외교 관계

● 北총리, 신임 말聯 총리에 축전(3/12,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재집권한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총리는 축전에서 북-말레이시아 사이의 관계 강화를 강조

● 英-北 의회그룹, 문화교류 확대 논의(3/12, 조선중앙통신)

- 영국-북한 의회그룹이 3월 4일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이번 양국간 “제 정당의원단 회의”에서 데이비드 알톤 영-북 의회그룹 위원장이 “양국 사이의 문화교류 확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 회의에는 양국 의회그룹 관계자, 영국 상원의원들과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 북한 외무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도 초청됐다고 통신은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박길연, 南 새정부 두고 볼 것(3/10, 연합)

- 북한의 박길연 유엔 주재 대사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북한측에 3월 중으로 핵신고를 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단지, 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박 대사는 남북관계에 관해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남과 북의 수뇌 부(정상)가 상봉해서 공표한 약속은 실행돼야 한다”면서 “이명박씨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 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가 “시간 문제”일 정도로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잘 이행했지만 미국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

● 남북문화지 南반입여부가 10·4선언 이행의지 시금석(3/11, 조선신보)

- 북한 문화인들이 남북 첫 공동 문화지인 ‘통일문학’의 남한 보급 문제를 “올해 2월 출범한 남조선 새 정권의 10·4선언 이행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 * 남·북·해외 문학인의 모임인 6·15민족문학인협회는 2월 1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통일문학’ 창간기념회를 가진 뒤 2월 하순 2천부의 창간호를 육로로 남측에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통일부가 북측 작품에 ‘수령님’ 등의 글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나. 남북교류

● 대북 농업지원물자 4월 첫 전달(3/16, 연합)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 농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충청도가 첫 지원 물품을 4월 중순 북한에 전달할 예정, 16일 충청도에 따르면 김정수 도농정본부장이 3월 11일 황해도 봉산군을 방문해 북한측과 대북 농업 지원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도는 4월 15일까지 첫 농업 지원 물품을 봉산군에 보내기로 함.
- 인천항에서 남포항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이번 지원 물품은 비닐하우스 10동 분량의 자재와 10ha의 밭에 파종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 비료 70t, 직파기 8대, 분무기 60대, 경운기 5대, 관리기 6대 등이며 물품 전달때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기동 도의회 의장, 농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방북해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비닐 하우스 설치 요령과 농기계 작동 및 관리 요령 등을 북한측에 전수할 계획임. 충청도는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해마다 2억~3억원 규모의 농업 물자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

● 대북지원단체 평양·금강산 방문 이어져(3/14, 연합)

- 한미 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3.2~7) 기간 중단됐던 재개된 남측 민간단체들의 평양, 금강산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나눔인터내셔널은 기술자 5명으로 구성된 1개 대표단은 1주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강남군 인민병원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에 X-레이 기기와 의료장비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설치하고 단층촬영



- (CT)장비와 수술실 자동문 운영 상황을 점검
- 어린이재단(전 한국복지재단) 관계자 7명도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아동 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논의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14일 오전 금강산 온정리를 방문, 연탄 5만장을 전달한 뒤 대북 협력사업 계획을 북측과 논의 중이며 국제보건의료재단도 14~16일 금강산 온정인민병원에서 주민 진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방북
 - *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키 리졸브'를 하루 앞둔 3월 1일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금강산, 개성 방문을 중단시켰다가 이 훈련이 끝난 7일부터 다시 방북해 달라고 초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음.
- **대북 경공업 원자재 130만불 상당 출항(3/1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25번째 항차분이 13일 출항했다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발표
 - 협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30분께 비누, 신발과 관련된 130만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실은 배가 인천항을 떠났다”면서 “14일 중 남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이번 배송을 마치면 북측과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공급의 이행률이 96%가 된다면서 오는 26일께 마지막 항차분이 출항할 예정”이라고 언급
 - **월드비전-농기계업체, 北에 농기계 12대 지원(3/12, 연합)**
 -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과 농기계 생산업체들은 감자, 채소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 7천여만원 어치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 월드비전 관계자는 12일 “익산농기계와 LS전선을 비롯한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실무접촉을 갖고 감자 파종기, 수확기와 트랙터, 비료살포기, 병충해 방제기 등 모두 12대의 농기계를 채소육종 협력사업 대상인 평양 미림남새연구소에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 월드비전은 이들 농기계를 19일 인천항을 통해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
 - **북한 결핵어린이 지원 의약품 인천 출항(3/12, 연합)**
 -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는 12일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결핵약 출항식’을 가짐. 운동본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결핵약과 종합영양제 등 3억원어치 의약품으로 1만명분임.
 - **국제백신연구소, 북한 어린이에 접종 지원(3/12, 연합)**
 - 국제백신연구소(IVI)는 4월과 5월에 북한을 방문해 남포직할시에 있



는 어린이 3천여명에게 수막염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 이번 접종은 북한 의과학원(AMS)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통일부의 기금 지원과, 글로백, 산타바이오테크닉스, GSK백신 등 백신 개발업체의 기부로 실시

● **경남 시민단체, 평양에 양묘온실 조성**

- 경남의 민간 통일운동단체가 평양시내에 양묘온실을 짓기로 합의하고 북측 산림을 푸르게 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나섬.
-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이사장 박창균 신부)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시내에 990㎡ 규모의 양묘온실 2채와 관리사를 지은 후 9천900㎡ 규모의 노지 양묘장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라이스, 北에 ‘비밀’ 핵신고안 간접 타진”<RFA>(3/11)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신고 지연 타개책으로 북한에 ‘비밀’ 신고 방안을 간접 제안했으나,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
- RFA는 김계관 부상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전문가들과 민간대표단을 만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中 “북-미 양자 핵협상 진전 기대”(3/11)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네바 북-미 양자 협상을 이틀 앞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들이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 도출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美 국무부 “북핵신고 형식보단 실질 원해”(3/13)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6자회담 합의



에 따른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이며 핵신고가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는 정말 적절한 계산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매킨 맥 대변인은 “실질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신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사실관계 등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북핵신고, 플루토늄문제와 HEU.시리아 분리 가능성(3/13)

- 미국과 북한이 13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플루토늄 문제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HEU) 및 시리아 핵이전 의혹을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네바회담에선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주(主)의제가 되고 북핵 3단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지,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 형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 “형식의 유연성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에 대한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

● 힐 “완전,정확한 북핵신고는 美아닌 6개국 문제”(3/13)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음 단계로 넘어 가고자 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3.13 숙소인 제네바 호텔 들라 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같이 말하고 “신고 형식의 유연성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 ‘완전하고 정확한’ 북핵 신고와 관련, “이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작년 10월 합의에 표현된 입장”이라면서 “다시 말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6개 당사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힐 차관보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신고에 관한 철저한 논의”라면서 “그 신고는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에 전달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에 대해 “그것은 신고의 한 부분이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힐-김계관 13~14일 제네바서 회담(3/11)

- 북핵 신고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양측이 쟁점 사항인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 미국무부, 인권관련 對北강경 태도 불변(3/12)

-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
- 이로써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라는 ‘악명’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억압적인 정권(The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독재체제(Dictatorship)’라고 표현
- 보고서는 “억압적인 북한정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모든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초법적 살인과 실종, 정치범 등에 대한 임의구금 등이 계속되고 있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 등 혹독한 처벌을 받으며 공개처형 또한 계속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

● 벨 사령관 “北미사일 관련기술 확산우려 여전”(3/12)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한 평화협정 이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북핵 6자회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사장비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북아에서 안보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
- 이어 북한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군사력 최우선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함께 표명하면서 “내 판단으로는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와 기본적인 외국원조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장기적인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화와 군사적인 대응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벨 사령관은 “북한이 작년말까지로 돼 있는 핵무기와 프로그램, 핵확산활동에 대한 신고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서 분명히 확인된 것처럼 핵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오래되긴 해도 치명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된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北 고위급 방미 적극 지원” <美코리아 소사이어티>(3/12)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지원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뉴욕을 방문해 미-북관계를 논의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리비어 회장은 1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계기로 “미-북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북미간 정치적 교류를 위한 복안을 밝혔다.
 - 리비어 회장은 평양 방문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학생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북한측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요청을 수락할 경우 북한 학생들과 학자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2003년부터 지원해 온 북한의 김책공대와 미국 시라큐스대학간 학술 교류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 **힐 “북핵, 형식에 유연하되 완전·정확 신고해야”(3/13)**
- 힐 차관보는 12일 미 상원 미-베트남 양자관계 청문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네바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주(主)의제가 될 것이며 북핵 문제 3단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언급
 - 힐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의 핵신고 형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의 유연성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에 대한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 **벨사령관 “北 미사일확산, 최근 ‘제로’ 수준”(3/13)**
- 미국의 덱 체니 부통령이 11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국”이라고 지목하고 “시리아가 미사일 무력 증강에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2005년 이후엔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이 청문회 녹취록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미사일 등 군사장비와 기술의 수출입을 금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준수하고 있는냐는 질의에 “북한이 이미 알려진 바대로 2005년 수출한 것이 마지막”이며, “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수입원의 하나이므로 북한은 수출하고 싶어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美제네바회담, 남북관계에도 중요변수(3/13)**
- 한 정부 소식통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남북관계의 함수 관계에 대해 “북미가 제네바회담에서 핵신고 문제를 넘어설 지 여부는 새 정부 초기 남북대화과 각종 협력사업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언급



- 북·미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및 대 시리아 핵기술 이전 등의 신고 방안에 의견접근을 보고,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할 경우 정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료지원 및 철도 긴급 보수 사업 등과 관련,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버시바우 美대사 “北 비핵화 이행해야 경제지원”(3/13)**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이 경제개발과 투자 등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보상과 지원을 다 받을 생각을 한다면 평화도 없고 통일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잘 진행해야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때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일된 입장을 보여야 6자회담에서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 **북·미 제네바 회담 돌입. 북핵 신고 해법 주목(3/13, 3/14)**

- 북한과 미국이 합의시한인 지난 해 연말을 넘겨 장기간 표류 중인 ‘북핵 2단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미 양국 대표단은 13일 낮(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와 북한 대표부를 번갈아 오가면서 양자회담을 열어 현 교착 상황을 공동으로 진단하고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집중적 협의를 벌였음.
-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진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UEP와 핵협력 의혹에 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 2단계 북핵 합의의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 협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

● **“제네바 북미협상 실패 차기행정부에 큰 부담될 것” <WSJ>(3/14)**

- WSJ은 제네바 북미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패 시에는 차기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분석했음.
- 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로 들어서면서 북핵 협상 등 외교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인도와의 핵협상도 시간에 쫓길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차기행정부도 출범과 함께 즉각적인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기 미 행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음.



- 김계관 부상은 이날 오전 제네바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제안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계속 연구 중”이라고 답한 뒤 “미국과 시각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 부상은 그러나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핵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의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학자, “美언론, 북핵문제 불공정 보도”(3/15)

- 미국 언론들이 북핵문제를 불공정하게 보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별력 있는 여론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의 학자에 의해 제기됐음.
- 조지 메이슨대학 사회인류학과의 휴 거스터슨 교수는 12일 워싱턴의 스티븐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주류 신문들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사실조차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5일 전했다.
- 거스터슨 교수는 미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 국제대학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연구센터가 매년 세 차례 발행하는 ‘비확산지(The Nonproliferation Review)’ 3월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행태가 미국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별력 있는 여론형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음.

● 라이스 “북핵6자회담 즉각적인 돌파구 기대 안해”(3/15)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 북·미 제네바회담과 관련, 북미간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견해차가 있어 즉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라이스 장관은 “이제는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해 북미간에 핵프로그램 신고형식이 아니라 북한이 공개해야 하는 신고대상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음.
- 그는 “미국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도 북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북핵 6자회담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선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무부, “제네바 회담, 건설적” (3/15)

- 미 국무부 손 매코맥 대변인은 14일 정레브리핑에서 “제네바 회담은 좋고 건설적이었다”면서 “핵 신고문제와 관련, 회담을 위해 만났을 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이르렀으나 이번 회담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은 아니며 후속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북·미, 차석대표급 후속 실무협의를..세부조율 추진(3/15)

- 북한과 미국은 수석대표급 회담은 13일 하루로 끝내고, 14~15일 이틀간 실무 차원의 후속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석대표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양측이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세부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됨.
- 힐 차관보는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3단계 협상 개최 전망과 관련, “그 이전에 다른 참가국들과 많은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그럴 태세가 돼있는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北, 中 대외사안에서 中 적극 대변(3/10)

- 북한 『로동신문』은 10일 미국이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이 신문은 10일 ‘모순으로 얽힌 중미관계’ 제목의 글에서 미 하원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해 “중국은...어떤 경우에도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처사가 대만 당국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된다고 항의했다”고 지적
- 노동신문은 부시 미 대통령이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미 집권자가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중국을 행각하여(가서) 그(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중국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말했다.
-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기 나라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고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냉전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중국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전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중국의 내부분제를 걸고 간섭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미 모순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中, 북중관계 ‘이상기류설’ 부인(3/12)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 전망과 한중관계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을 받고 중·북관계의 ‘이상기류설’을 부인했음.
- 양 부장은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곧 제3국에서 회동한다”면서 “이번 회동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최근 북중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은 아주 정상적이며 이상한 현상을 전혀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음.

- 양 부장은 한중 외교관계 격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명박 선생이 한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문을 연 뒤 “중국과 한국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단계 전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北제품 부정수입한 2개 회사 제재(3/13)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의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북한으로부터 스테인레스 제품을 수입한 2개 회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2일 보도
-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이시카와(石川)현의 배관제조 업체인 ‘피팅히사요’와 교토(京都)시의 무역회사 ‘호미트레이딩’으로,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제조된 스테인레스 배관용 연결 부품을 부정 수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6개월 단위로 연장돼온 대북 경제제재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일본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납치문제 등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재를 연장할 가능성이 큼.

● 日, 북핵감시 지진계 설치(3/14)

- 일본 기상청이 북한의 핵실험 감시 강화를 위해 나가노(長野)현에 있는 정밀지진관측실 지하 700m에 지난 13일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통신은 지진계가 땅 속 깊이 설치돼 있어서 더욱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며 특히 지하 핵실험과 같은 미세한 진동을 탐지할 수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 이 장비는 핵실험 특유의 지진파 확인과 진원지 추정에 강점이 있어서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 빨리 실험 지점과 규모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음.

● 日, 남북자문제 진전 없으면 對北제재 연장(3/16)

- 일본은 다음 달 13일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연장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
-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북한 물품의 반입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 대북 경제제재를 취했으며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일본은 이미 2차례 제재를 연장한 바 있음.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노부다가 마치무라의 말을 인용,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남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중전인대 주말 국가주석 선출…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3/12)**
 - 중국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 5년의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총리 등을 선출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제2기 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킴.
 - 중반에 접어든 전인대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부주석에 이어 전인대 상무위원장·부위원장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선 총리와 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인사를 마무리함.
 - 권력 서열 1-3위인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유임이 내정됐고, 후 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 직도 겸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개최된 제17차 공산당대회에서 결정.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을 추인
 -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과 리커창(李克強) 정치국 상무위원은 예상대로 국가 부주석과 국무원 상무 부총리직에 무난히 선출될 전망
- **중정협, 오늘 주석·부주석 선출(3/13)**
 -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차 회의는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5년 임기의 주석과 부주석, 그리고 비서장, 상무위원들을 선출
 - 자칭린(賈慶林.68) 정협 주석이 주석에 지명됐고,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64) 장애인연합회 주석과 후야오방(胡耀邦)의 장남 후더핑(胡德平.65) 공산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부주석직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음.
 - 덩푸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에다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은 중국 지도부가 덩샤오핑에 대한 헌사의 표시로 승진 대열에 올려 놓았고, 후 부부장의 발탁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존경을 받고 있는 후야오방에 대한 복권 의지를 보인 것으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
- **중국兩會, 정협 폐막…덩샤오핑 아들 부주석에(3/14)**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1기 1차회의가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
 - 제11기 정협에서는 자칭린(賈慶林) 현 주석이 재선출되고 덩샤오핑



(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64) 장애인연합회 주석을 비롯한 25명의 부주석이 선출됐음.

- 폐막식에서는 중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발전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정협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정치결의가 통과
- 자칭린 주석은 폐막사에서 “올해 회의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올림픽 준비,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정협 위원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며 “정협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자평했음.
- 정협은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올해는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과 대표와 소수민족, 각종 직능단체, 기업인 대표 등 2천236명이 선출됐으며, 폐막식에는 2천148명이 참석

● 中 전인대, 시진핑 부주석 선출(3/15)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재선출하고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을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 후 주석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도 다시 선출됐음.
-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재선출했으며, 상무부위원장은 왕자오궈(王兆國)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화젠민(華建敏) 국무위원, 리젠궈(李建國) 산둥성 당서기, 천즈리(陳至立) 국무위원, 저우테농(周鐵農)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주석 등 13명이 선출됐음.
- 상임위 비서장은 리젠궈 부위원장이 겸직하게 됐으며 17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를 거쳐 161명의 상임위원이 선출됐음.
- 리커창(李克強) 상무위원은 이번 전인대에서 상무 부총리를 맡아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5년 후 원자바오 총리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전망됨.

나. 한·미 관계

● 버시바우 “北, 한·미 더 긴밀해진데 적응해야”(3/10)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0일 주한미상공회의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근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발언에 대해 반응했지만 일단은 더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해진 시한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한미동맹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내



용은 아니다”고 전제, “PSI는 러시아 등 100개국 가까이가 참여하는 가치있는 활동으로 각국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참여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음.

- 한미 FTA 비준과 관련, “쇠고기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FTA 비준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음.

● 조지 부시 前 미 대통령 제주 방문(3/11)

-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1시 45분께 전용기편으로 제주에 왔음.

● 한·미, 정상회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3/12)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다음달 18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도 주요 의제일 것이며, 북핵 상황이 한 달여 뒤에 어떻게 달라져 있는 지에 따라 양 정상에 나눌 대화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수준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부시 전 대통령 “누가 대통령돼도 한미동맹은 공고”(3/13)

-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13일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교류재단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미 FTA가 필요 없다는 등 후보들이 경선때 하는 말을 듣고 걱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건 경선때 하는 말이고 취임하면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음.
-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경선에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부시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한국만큼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가 새로 대통령이 되든 이 동맹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를 함께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美전문가, “한국, 한미일 안보체제위해 PSI, MD 가입해야”(3/14)**

- 미국이 아시아에서 직면한 위협과 도전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한국, 일본의 새 지도자와 3자 안보체제를 구축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아시아전문가가 13일 주장했다.
-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특강 및 최근 자신이 작성한 AEI 정책연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작년에 집권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수년간 악화돼온 한·일 관계개선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이 밝혔다.
- 오슬린 연구원은 한·미·일 3자 안보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참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음.
- 그는 그러나 한·미·일 3자 안보체제가 자칫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인식돼 중국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따라서 3자 안보체제는 북한의 핵위기, 해상안전문제, 각종 재난시 인도적 지원활동과 같은 공통의 안보문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벨사령관 “한국 美무기구매 지위 나토 수준 돼야”(3/14)**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미 하원군사청문회에 출석, “한국이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무기구매 때 최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들의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고, 이해 못할 일”이라고 말했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14일 전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은 옳지 않으며 현행 ‘나토+3국’에 한국을 포함해 ‘나토+4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
- 벨 사령관은 또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최우선적 대우를 받도록 한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 미·중 관계

● **中 “美 인권보고서는 냉전적 사고”(3/12)**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맹공을 가했음.
- 미 국무부는 11일 내놓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등 10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비판했음.
- 양 부장은 “나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인권대화를



나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냉전시대 사고방식에 집착해 대결을 조성하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 신문관공실은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반격하기 위해 “2007년 미국 인권기록을 1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음.

● 中 “美, 자신의 인권상황부터 돌아봐야”(3/13)

- 미국이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이 열악하다고 비판한데 대해 중국 국무원은 13일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가 “용기있게 자국의 인권 문제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강경 대응했음.

- 중국 국무원 보고서는 2006년 미국내 강력범죄가 한해 전에 비해 1.9% 늘어났다는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와 버지니아공대 사건 등 대규모 총기사망사건들을 들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자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해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명하지 못한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충고한 뒤 미국의 인권 기록을 “충격적으로 황폐한” 수준이라고 규정했음.

라. 미·러 관계

● 美-러 내주 MD협상 재개..성과는 미지수(3/13)

- 미 백악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오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12일 발표했다.

-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회담 때처럼 양국 외무,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얼마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됨.

- 조지 부시 대통령은 “MD가 결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닌,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폭력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MD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

-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2+2’회담이 실패하면 다음달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만나 또다시 MD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모스크바의 한 외교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 만큼 MD문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MD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유럽 MD 기지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와 협상을 벌이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 측에 MD기지를 별도로 구축하지 말고 러시아가 임차 중인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기지 및 러시아 남부 아르마비르 레이더 기지 공동 사용을 제안한 상태임.

마. 중·일 관계

● 中법원 “日외교관은 스파이…기자는 대리인”(3/11)

- 중국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고법)이 일본 외무성의 국제정보 총괄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인정, 이 조직의 간부와 주중 일본대사관 서기관을 ‘스파이’로 단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양국 관계에 파문을 주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
- 이 법원은 지난 2006년 9월 공판에서 이들 2명의 일본 외교관과 접촉한 중국인 남성(48)에 대해 스파이죄를 적용,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외무성의 조직과 외교관을 스파이로 단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 법원은 또 이 중국인 남성과 접촉한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인 기자 2명에 대해서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부모가 공산당 원로 간부로 당 중요 기관에 지인이 있는 이 중국인 남성은 베이징에서 일본인 고객을 상대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오다 반일 데모가 거셌던 2005년 봄 공안당국에 체포됐음.
- 판결은 이 남성이 이들 외교관 2명이 스파이 요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차례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캐내 전달했으며 2005년 초에는 이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방문, 지인들로부터 얻은 지도자용 전화부 등을 ‘스파이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전달, 30만엔을 받은 혐의도 지적

동북아연구실 제공